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나주, 쪽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 주말 나주로 향한 건 오로지 배나무 때문이었다. 최근 돌배나무와 콩배나무를 관찰하며, 한국에서 자생하고 재배되는 배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의 고장인 나주에 가 좀 더 자세히 눈으로 재배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배 수확철이 지난 과수원은 한산했다. 대신 가지마다 주황색 열매를 가득 매단 감나무가 과수원의 풍요로움을 대신했다. 배 농장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가는 열차 시간까지 두어 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농장주에게 주변에 둘러볼 데가 있는지 물었다.

"영산강 따라 가보세요. 쪽 가다 보면 천연염색박물관도 나와요." 그는 말했다.

과거 염료식물을 그린 적이 있는 나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영산강변을 따라 걸었다.

박물관에 다다르자 건물 앞에 분홍색 쪽꽃 군락이 한 눈에 펼쳐졌다. 들판에 핀 꽃이 쪽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던 것은 오 년여 전 이맘때 쪽을 관찰해 그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주변에 쪽을 재배하는 곳이 없어 생체를 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때의 고생이 무색하게도 이곳엔 쪽이 널려 있었다.

쪽은 마디풀과의 일년초로, 중국 원산의 식물이다. 이들은 천연염료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었다. 천연염료란 식물의 잎, 꽃, 열매, 뿌리 그리고 색깔 있는 흙과 돌, 곤충, 조개 등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푸른빛 색소를 만드는 식물을 통틀어

'인디고'라 부른다. 앞에 함유된 인디칸이라는 물질이 포도당과 인독실로 가수분해된 후 인독실이 산화되면 인디고 색소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쪽을 가리켜 인디고라 한다. 그러나 세계에는 인디고 색을 낼 수 있는 100종 이상의 식물이 있다. 다만 인디고 성분이 많이 함유된 7종도만이 염색산업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쪽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들 색에 의아해한다. 생체에서는 인디고의 푸른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남염'이라고도 부르는 쪽의 잎은 실제로 초록색이며, 꽃은 분홍색이다.

쪽은 환원염료로, 염료가 환원제 또는 발효에 의해 환원되고 공기로 산화되어야 청색으로 발색된다. 그에 반해 치자, 울금과 같은 식물은 직접염료로, 생체에서도 염료 색이 드러난다.

일본에서는 쪽으로 염색 작업을 하는 예술가도 많고 문화도 성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쪽 염색과 관련된 문화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다. 푸른색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쪽을 재배하거나 번거로운 염색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주에서 만난 쪽이 더욱 반가웠다.

나주는 쪽 재배와 염색 문화가 크게 발달한 고장이다. 그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나주는 햇빛과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 쪽을 재배하기 좋다. 여름 장마철마다 영산강 범람 공포에 떠는 농민들에게 장마철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쪽은

선호되는 작물이었다. 게다가 쪽 색소를 추출하여 침전시키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석회류인데, 나주는 인근 바다에서 조개나 굴 껍데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용기 굵은 가마도 곳곳에 있어 석회를 만들기 쉬웠다. 영산강의 물도 쪽 염색 후 찻물을 빼는데 좋은 조건이었다.

또한 과거 나주에서는 목화(면) 재배가 성행해 염색을 위한 염료의 수요도 증가했고, 과거 고려에서 조선 시대까지 나주는 호남의 중심지였기에 공예가 발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박물관에서 나주에 거주하는 전통공예인들의 쪽 염색 작품들을 보고 나왔을 때, 나주에 대한 나의 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토록 염료식물에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나주에는 배나무와 영산강, 나주곰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쪽도 있다. 셋골에선 쪽 염색 축제가 열리고, 쪽 재배와 공예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나는 당분간 푸른 쪽빛의 가을 하늘을 볼 때면 나주가 떠오를 것 같다.

해가 질 무렵 열차역으로 가는 길 영산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강을 따라 넓은 집들이 있고, 논과 밭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쪽빛도 있었다. 질 푸른 영산강의 물색은 그야말로 쪽빛과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 모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나주를 사랑하게 되었다.

<식물세밀화기>

의료칼럼

한방추나요법



박정열 상무365한방병원 한의학박사

한의사들이 환자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약처방을 들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본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방법이 있다.

그 외 최근에는 만성통증과 급성통증 질환에 추나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자가 운전차 증가와 고령화를 상층, 산재 발생 등으로 인해 수요가 늘면서 시술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추나요법은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관계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많이 시술이 되었으나, 최근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도 급여항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년에 20차례까지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추나요법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추나요법은 정형외과 등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유사하지만,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평가해서 술기를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척추와 관절 마디들을 부드럽게 당기거나 밀어서 틀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한 뼈·근육을 치료한다. 특히 한의학적 평가를 통해 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 개선은 물론 내장기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즉 추나나 한의사가 자신의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인체의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학적 수기요법을 말한다. 추나 요법은 인체의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 부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나 증상을 치료 또는 교정을 할 수 있으며 그와 연관된 혈관, 림프, 신경 등의 기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추나 요법은 관절의 아탈구와 척추나 관절의 기능장애의 치료, 근골격계의 퇴행성변화에 대한 관리 및 치료, 인대와 근육 같은 결합조직의 손상에 대한 치료, 좌우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자세의 문제를 치료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며 인체 기능을 개선하고, 구조적 완전성 등의 치료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환자가 추나 요법에 대한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질환의 관리와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다.

추나 요법은 크게 신체 관절 구조를 치료하는 정골추나 기법과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에 시행하는 근막추나 기법으로 나뉘며, 그 외 특수 구조인 호흡기나 순환기에 적용되는 내장기추나 두개천골계에 적용되는 두개천골기법으로 나뉜다.

또한 주로 근골격계에 적용하는 기법 중 안전성과 난이도에 따라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구분하는데, 단순추나요법은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고 수축 이완을 유도하여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이다. 복잡추나요법은 관절을 교정할 때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 자극을 주는 치료이며, 특수추나요법은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치료이다.

무엇보다 추나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문진과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방사선 검사나 MRI나 초음파검사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몸 상태와 골밀도, 근육상태, 관절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사들은 추나 요법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을 줄여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추나 교육과 한의학적인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추나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기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재열 전 초등학교 교사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 근로정신대 문제, 사도광산 문제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록하며 남의 마당에 있는 곡식을 탐내듯 한다.

우리 국민들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보다는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our'라는 낱말은 일본 사람도 '우리'가 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 물론 '우리'라는 낱말은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인의식이 있지만 '한국땅'하면 주인이 대

한민국 사람이라는 주체가 확실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보다는 '한국'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 외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TV에서도 여러 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우리'라고 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과 세계 각국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말하며 밝은 표정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영상이 자주 방영된다.

예전에 울릉도 도통항에 있는 '독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이 한두 번 나왔다. 관람객이 꼭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관람이 끝나고 나와 출구에서 방문록을 기록하는데 성명, 주소를 기록하고 소감을 쓰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기록했기에 또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일본 사람도 '우리땅', 미국 사람도 '우리땅'하면 독도는 대체 누구의 소유라는 말인가?

방송에서도 자주 독도는 '우리땅'으로 말하고 신문에서도 '독도는 우리땅'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다. 물론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확실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표현이 좋다.

같은 바다와 땅을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 (한국은 우리땅, 일본은 일본땅) 제삼자인 외국인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는 말은 어떤 것일까? '동해', '우리땅' 어딘가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독도 현지 바위 위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이 힘을 모아 '한국땅'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해 놓은 기록이 있다. 일본에서 여러 차례 독도를 육식내는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한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외교력으로 나오면 우리도 외교력으로 대응하고, 일본이 국제 홍보전으로 나오면 우리도 홍보전으로 대응해야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삼자(외국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 삼자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 될 수 있도록 '독도는 한국땅'으로 기록하고 말해야 한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력도 기르고, 외국에 나가는 한국 사람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가서 외국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우물 한 개구리 식으로 우리들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해서 안 된다.

세계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독도는 한국땅'으로 자주 말하고 기록해야 한다. 독도의 날을 축하한다.

社說

'40주년 예향' 지역·세계 잇는 글로벌매거진으로

광주일보 자매지 '예향'이 창간 40주년 '예향'은 그동안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잡지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일보는 지난 22일 남구 임암동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예향' 창간 4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 김여수 광주일보 회장 겸 발행인은 "호남의 근현대사는 광주일보의 역사이며, 광주일보의 역사는 '예향'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호남 정신, 호남인들의 삶 속에 깃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1984년 9월 20일 4×6배판 크기로 월간 '예향'을 발행했다. '광주일보 40년사'에는 당시 월간 '예향' 창간 배경이 나와 있다. "...5(共) 전까지만 해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와 전일방송

을 운영하며 활자·방송매체에 이어 영상매체인 TV방송국까지를 설립, 호남권 대표 언론 망을 구축하려는 꿈을 부풀려 왔으나 5개 정권의 언론 통·폐합 정책으로 되레 전일방송을 빼앗기게 되자 월간 '예향' 창간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예향'은 각계 저명인사는 물론 우리시대 최고 예술가들의 문화와 삶에 대한 철학을 전달해왔다. 또한 2013년 북한 이후에는 '아시아 문화 지존'을 놓고 벌이는 광주와 홍콩, 싱가포르 등이 벌이는 문화경쟁을 심층적으로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 일조를 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매거진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왔다.

광자는 "마흔 살에는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이라 했다. 세상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예향'은 지나온 40년을 토대로 앞으로 독자를 바라보며 정진할 것이다.

받아놓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도 안해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던데 인구 감소도 심각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북 등 같은 소멸위기를 처한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중앙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하지만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상당수 시·군들이 지원 받은 기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도시권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순천·광양·무안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8개(81%)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나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아주 저조한 것

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회의원이 파악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의하면 장흥군은 80억 원의 기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80억 원의 소멸기금을 교부받았는데 그마저도 집행률은 34.6%에 그쳤다.

구례와 고흥도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교부받은 예산 80억 원, 64억 원을 쓰지 않았다. 이 밖에 나머지 시·군들의 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평균 19.4%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교부돼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남은 시·군들이 교부받은 소멸대응기금이 제때,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 부통령 해리스와 전 대통령 트럼프 가운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완전히 돌로 나뉜 미국의 60번째 대통령은 11월 5일 탄생할 예정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이번에도 역을 패배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는 앞서더라도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더 얻는 후보자가 권좌에 앉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에도, 2000년에도 사례가 있었다.

미국이 연방 법률을 제정할 때 만들어진 독특한 선거제는 논란에도 2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만약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주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선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선거인단 제도다. 선거인단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는데, 모두 538명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주(State) 선거인단을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선거 후

반으로 갈수록 경합주 쟁탈은 전쟁을 방불케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고, 헌법 개정도 어려워서 선거제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러운 것이 있다면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제·무역·안보·국경·낙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인식, 의견, 비전, 대책 등을 유권자 누구나 알기 쉽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표가 무슨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으로 보다 미래로 향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누구의 조력을

받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한 과정'을 거치는 것도 다반사다. 당 대표의 의중이나 몇몇 이너서클의 결정으로 국민의 대표가 된 이들이 국민, 국가에 봉사할 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정파적 사고, 출세 지향, 맹목적 지지 등을 버리고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 등 국민의 대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때다. 아니 이미 그렇게 했어야 했다. /윤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검증 없는 대표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